

장윤미 연구원

요약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기존의 주요 보험회사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각종 이슈로 제한적 범위의 보상 수준을 제공해 옴. 그러나 2020년 들어 영미권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보험상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수탁업체를 부보하는 캡티브 보험회사도 설립됨.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보험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2021년 들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암호화폐를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기, 분실 등의 리스크를 헤지하는 암호화폐 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페이팔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 보도와 2021년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의 비트코인 투자 공개 이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암호화폐를 결제 및 투자 수단에 포함시키는 전통 금융기관이 늘고 있음
 - 2020년 12월 포브스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시장 출시 이후 12년 만에 시가총액 5,60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기, 분실 등 관련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음¹⁾
 - 암호화폐 보험이란 해킹 및 도난 등에 의한 암호화폐 손실이나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등 암호화폐 관련 광범위한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상품임

〈그림 1〉 비트코인, 금, S&P 500 인덱스 비교



주: 2017년 1월 1일을 100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Forbes(2020. 12. 11), "Why 2021 Is Set To Be Even Bigger For Bitcoin"

1) <https://www.forbes.com/sites/billybambrough/2020/12/11/why-2021-is-set-to-be-even-bigger-for-bitcoin/>

- 보험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부분 무허가이고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각종 이슈로 인해 제한적 범위에서 보
 험을 제공해 왔으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인 방식으로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음
 - 암호화폐 시장정보 분석업체 ‘크립토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70%는 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등
 록이 없는 상황이며²⁾ 암호화폐 거래소의 96% 이상이 암호화폐 해킹에 대비한 보험이 없는 상황임
 - 주요 보험회사는 암호화폐 합법화에 관한 논란, 규제 가능성, 높은 가격 변동성, 사이버 공격, 거래소 보안 인프라
 파악에 대한 어려움으로 보험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음
 - AIG, XL 케이틀린(XL Catlin), 처브(Chubb) 및 미쓰이스미모토 해상화재보험 등이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보
 험상품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기존 비암호화폐 영역에서 제공하는 상품 대비 보상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짐³⁾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경우 내부 적립금을 이용한 자체 해킹방지기금 사푸(SAFU⁴⁾)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음

- 최근에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캡티브 보험회사⁵⁾
 를 설립하여 암호화폐 수탁업체를 부보험
 - 세계 최대 보험 조합인 런던 로이즈는 2018년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킹덤트러스트(Kingdom Trust)에 암호화폐 보
 험을 제공한 바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암호화폐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유연하게 변동하는 암호화폐
 해킹 및 도난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 현재 제공되는 암호화폐 보험은 화폐 도난에 관한 범죄피해 외에도 암호화폐 관리에 관한 수탁보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기업성 보험이 있음
 - 2020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수탁업체인 제미니(Gemini)는 캡티브 보험회사 나카모토(Nakamoto Ltd)를 설
 립하였고,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제미니 커스터디(Gemini Custody)를 부보험

- 현재 암호화폐 보험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암
 호화폐 보험의 성장 추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https://kr.investing.com/news/cryptocurrency-news/article-342543>

3) <https://decenter.kr/NewsView/1S3JRAIT54/GZ02>

4) 사푸(SAFU: Secure Asset Fund for Users)는 전체 거래 수수료의 10%를 할당해 자금 위험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자산을 보상해 주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해킹방지기금임

5) 캡티브 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위험을 타 보험회사에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는 위험관리 기법임